

출판 · 영화 블랙리스트 의혹 잇따라

▶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

출판계... 박근혜 정부 진보성향 특정 작가들 배제 의혹 추가 제기
노용래 의원 "심사위 통과한 책들 출판진흥원이 누락시켜" 주장

영화계... 다큐 '다이빙 벨' 상영
2014 부산국제영화제서 방해받아
김병욱 의원 "예매정보 확인결과 시간·수단 등서 비정상 흐름 있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다이빙벨' 상영 방해 티켓 사재기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출판·영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출판계에서는 이날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성향의 특정 작가들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노용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한 '2016 초록·샘플 번역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도서 4권을 공개했다.

시사평론가 김중배 · 조형근의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사극사범 수배자 이야기를 쓴 이기호의 '차남들의 세계사', 빈부격차와 복지문제를 다룬 정치현의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과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다.

노 의원은 출판진흥원이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책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기성 출판진흥원장의 개입 여부 또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성 원장은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그는 노 의원과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

궁했으나, 이 원장은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영화계 블랙리스트도 화두가 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이 조직적으로 방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그간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두고 박근혜 정부에서 외압을 했다는 의혹이 그간 꾸준히 이어졌다.

김 의원은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예매정보를 확인해 보니 예매시간, 예매수단, 예매좌석배치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었다"면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다이빙벨 상영방해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뉴시스

오늘 전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전주시립합창단의 제130회 정기연주회 '로시니 <스타바트 마테르>'가 20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김 철 상임지휘자가 지휘하고 솔리스트로는 소프라노 김은주,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테너 신동원, 베이스 방광식 등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한다.

특별히 국립합창단과 원주시립합창단을 초청해 탄탄한 합창사운드를 들려볼 수 있으며 전주시립교향악단이 함께 한다. 티켓은 1층 7천원, 2층과 3층은 5000원이며 예매는 나라투표(http://naraculture.co.kr)에서 가능하다. /김민근 기자



남성 듀엣 '옴', 새만금에 온다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 기념 콘서트 출연
대표곡 '남자니까 웃는거야' 등 들려줄 듯

'2023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기념 콘서트'가 21일 오후 7시30분 새만금 상설공연장에서 열린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전주문화방송(MBC)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8월에 확정된 세계잼버리대회의 유치를 기념하고, 새만금의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무대에는 최근 '불후의 명곡' 등의 방송을 통해 뛰어난 가창력으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남성 듀엣 발라드 가수 '옴'이 출연한다.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이창민과 이현으로 구성된 옴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매력이다. '발판 잘 먹더라' '남자니까 웃는 거야' '너 내게로 와라' 등의 대표곡을 들려 줄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또 공연 시작 전에는 상설공연장 야외무대에서 '투호 놀이' '전통 활쏘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행사와 함께 '2017 새만금상설공연 거리 거점 공연(바다 위의 작은 무대)'의 하나인 드림팩토리의 마을 무대 등도 만나 볼 수 있다.

이병천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새만금이 세계잼버리대회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한 만큼, 세계적인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전석 만원이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는 5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전주 무형유산 특별기획공연 마련

국립무형유산원, 내일 일쭤마루 대공연장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김정남)은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전주에서 펼쳐지는 살나눔 공연 한마당을 펼쳐 보인다.

오는 21일 오후 1시 유산원 일쭤마루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17 전주의 무형유산 특별기획공연'은 전주시 무형문화재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지역 차원의 보호와 노력을 지역민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연기획에 앞서 유산원은 전주시의 무형유산 23종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전주시 지역 비지정 무형유산 목록화, 영상 기록화, 공연·시연,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2017 전주의 무형유산 특별기획공연'은 전주에서 조사된 23개 종목 중에서 전통적 공연·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전주의 '예수제'를 특별공연으로 선보인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이 '동화농민운동'을 주제로 창작한 '전주, 살판 날판 출판 님네~!'의 기획공연과 지난해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되었던 전라북도 남원시의 '남원농악'이 초청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관람은 무료. /정해은 기자

농지연금사업 신청안내

농지연금사업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사업

1. 농지연금사업이란?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 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

2. 신청대상

- ▶ 연령 :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
- ▶ 영농경력 : 5년 이상(전체 영농경력 합산)

3.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4. 지원조건

- ▶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
 - 농지가격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단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가격 80%인정
- ▶ 연금수령방식 : 종신형 / 기간형(5년, 10년, 15년)

5. 농지연금의 장점

- ▶ 평생보장 : 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담보농지를 직접경작하거나 임대하여
 -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
- ▶ 재산세 감면 :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만 감면됩니다.

(063) 580 - 1011 ~ 1017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지은행부

임실 필봉마을 배경 전통연희극 '히히냥락' 전주서

21일까지 전주소리문화관 놀이마당서 선봬

전주소리문화관은 전통연희극 '히히냥락'을 오는 20~21일 오후7시 문화관 놀이마당에서 선보인다.

1950년대 임실군 강진면 필봉마을 배경으로 한 공연은 필봉농악의 3대 상쇠 양순용을 주축으로 상쇠의 삶과 애환을 그린다. 극은 정월대보름, 도내기, 단오, 백중 등 세시 날이면 풍물굿으로 마을의 안녕과 화목을 유지해 오던 임실군 강진면 필봉마을에 '쑤단'이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펼쳐진다.

필봉 굿상쇠인 봉필은 우연찮은 기회에 그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다. 이를 지켜본 쑤단 단장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봉필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마을굿을 전승하던 봉필은 쑤단에 입단해 유랑생활을 하기로 결심한다. 이를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봉필에게 마을굿을 지켜야 한다며 만류한다.

전통연희극 '히히냥락'은 필봉마을에 들이닥친 변화의 바람과 위태롭게 맥을 이어가던 필봉마을의 굿 이야기가 흥미롭게 그려진다. /정해은 기자

전북 학생음악 페스티벌, 내일부터 5일간 전북교육문화회관서

전북도교육청이 음악교과 수월성 교육 구현 및 창의력 신장과 학생 1인 1악기의 심미적 능력 향상을 위한 2017년 전북 학생음악 페스티벌을 21일부터 25일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도내 70교 초·중·고 265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창, 사물놀이, 관악합주, 현악합주, 기악합주 등의 연주가 열린다. 첫 날인 21일에는 학생오케스트라, 관악 공연이, 23일에는 학생오케스트라, 현악 합주, 24일에는 사물놀이, 오카리나, 합창, 기타 분야, 25일에는 사물놀이, 학생 오케스트라, 관악 분야의 공연이 열리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게 된다.

관악합주는 자유곡 1곡(10분 이내), 현악합주는 자유곡 1곡(10분 이내), 관현악합주 자유곡 1곡(10분 이내), 사물놀이 7분 이내, 기악합주 자유곡 1곡(10분 이내), 기악합주 자유곡 1곡(10분 이내), 합창 자유곡 2곡(1곡은 전통 합창곡,

1곡은 퍼포먼스를 기미한 곡)을 연주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줄길 바란다"며 "해마다 참가인원이 증가하고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기르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학생음악페스티벌은 경쟁 위주의 경연이 이뤄지던 음악실기대회를 2013년부터 음악을 통한 공감과 협력을 연주하는 축제로 변경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